



“이곳이 이상낙원”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을 찾은 상춘객들이 11일 오후 노란 유채꽃밭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계 부딪힌 누리예산...2차 보육대란 초읽기

유치원 이달부터 체불...시·도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고민 광주, 임시회 미제출 방침...전남, 어린이집 편성 안할 듯

광주·전남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광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유치원 예산도 시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편성 시기조차 잡지 못하면서 '2차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전남은 “보육 대란을 막으려다 교육 대란으로 번질 태세”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500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친 뒤 지역 유치원들에게 배정할 바 있다. 시교육청은 4월분 유치원 예산을 여태껏 편성하지 못해 오는 25일 예정된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다.

◇전남, ‘교육 대란’ 터질텐데=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 305회 임시회(5월 17일~26일) 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96억원)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08억)을 편성하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1200억원 규모에 불과한데 22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등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액만 4000억원이 넘는다는 게 전남도교육청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낡은 교실 증·개축(200억), 급식 시설 개선 사업(240억), 학생 선수 합숙소 보수·증축 사업(26억) 등 시급한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앞서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 전에도 “다른 도시 지역과 달리, 전남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대안 시설이 없어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만큼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으로 자칫 ‘교육 대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고민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5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396억2200만원, 유치원 예산 203억1700만 원을 지난 2월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뭐하나=시·도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교육 대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조차 못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일선 교육청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가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남도보다 올해 광주 지역 유치원 원아수가 22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 해질 19:03 | 달돋이 10:00 | 달질 --:--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9/21	보성	5/17
목포	9/17	순천	8/18
여수	9/16	영광	8/21
나주	6/21	진도	9/17
완도	10/17	전주	8/23
구례	5/18	군산	8/22
강진	8/17	남원	5/21
해남	8/16	홍산도	8/15
장성	5/21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2.0	
면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5~2.5	
남해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서부	남동~남	1.5~3.0	남동~남	1.5~3.0	
면바다(서)	남동~남	1.5~3.0	남동~남	1.5~3.0	

◇생황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49	10:49
	17:54	22:58
여수	00:20	06:19
	12:28	18:33

◇주간 날씨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	☀	☀	☁	☁	☀	☀
14/20	12/24	9/24	12/20	11/20	10/21	10/21

중국어능력시험, 시각장애인에 시간 연장 인권위, 5월부터...장애 등급따라 최대 1.2배

5월부터 중국어능력시험(HSK·한어 수평고시)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은 시험 시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1.5배 보장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SK한국사무국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시행하는 HSK 시험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각장애 1~2급인 응시자는 전체 시험시간의 1.5배를, 시각장애 3~4급 응시자는 시험시간의 1.2배를 보장받는다. 시각장애 1급인 대학생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HSK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주관사가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는 제공했지만,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토익(TOEIC), 토폴(TOEFL) 등 영어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HSK한국사무국에 시험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초·중·고, 체벌·성적 차별 줄었다

광주교육청 설문...각종 인권지표 개선

언제چه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 학생들이 없어질까.

광주교육청이 11일 발표한 민주인권 진화도 조사 결과는 개선되고 있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 내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2310명과 교직원 931명을 대상으로 차별 존재 여부·교육 선택권·체벌·학습권·정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각종 인권 지표가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에 따른 차별 여부와 관련,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전체의 15.5%로, 지난 2013년(30.3%)에 비해 줄어 들었다. 학교에서 두발 규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15.1%로 지난해 조사(26.8%)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벌과 학교폭력도 지난해 2013년 조사에 견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의 경우 “체벌 받았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중 27.1%→18.9%, 고등 28.8%→16.8%)이 급격히 감소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도 2013년(2.1%)보다 감소한 1.2%로 나타났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학생의 55.2%가 반영하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조사(44.1%)보다 늘었다.

교사 등 교직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높아졌고 담당 과목에 따른 차별이 줄어드는 등 교사에 대한 민주인권진화도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2.5% 포인트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경찰, 총선일 ‘최고 수준’ 비상 근무

광주·전남 등 전국 경찰에 4·13총선 투표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모든 지휘관·참모는 소속 관서에서 정차 근무해야 한다.

광주경찰청은 투표소(359곳)·개표소(22곳)·상황실(22곳) 등에 경력 1045명을 투입한다. 전남경찰청은 투표소(870곳)·개표소(22곳) 등 총 1826곳에 3536명의 경력을 배치한다.

투표소에는 순찰차량을 배치하거나 매시간 순찰하고, 투표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즉각 현장에 출동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노선마다 무속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호송한다.

광주·전남 개표소 27곳에는 경찰관이 60여명씩 배치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도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대남로 1999-24 (영일동 22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대남로 1999-24 (영일동 225-4)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 객실	편안드롭송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 객실
레지던스형 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화한 입차단,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엘리베이터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벨라 15명, 동나무무원들 1박 + ks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연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원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원비, 초·중·석식가능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 ~ 80% 신상품 3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